

2019학년도 논술고사

인문계열



성 명	
전 형	
수험번호	

표지를 제외한 페이지 수 : 6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우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서 거리로 나왔다. 적막한 거리에는 찬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

“몹시 춥군요.”라고 사내는 우리를 염려한다는 음성으로 말했다.

“추운데요. 빨리 여관으로 갑시다.” 안이 말했다.

“방을 한 사람씩 따로 잡을까요?” 여관에 들어갔을 때 안이 우리에게 말했다. “그게 좋겠지요?”

“모두 한방에 드는 게 좋겠지요.”라고 나는 아저씨를 생각해서 말했다.

아저씨는 그저 우리 처분만 바란다는 듯한 태도로 또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른다 는 태도로 멍하니 서 있었다. 여관에 들어서자 우리는 모든 프로가 끝나 버린 극장에서 나오는 때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북스럽기만 했다. 여관에 비한다면 거리가 우리에게 더 좋았던 셈이었다. 벽으로 나누어진 방들,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었다.

“모두 같은 방에 들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내가 다시 말했다.

“난 지금 피곤합니다.” 안이 말했다. “방은 각각 하나씩 차지하고 자기로 하지요.”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라고 아저씨가 중얼거렸다.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안이 말했다.

우리는 복도에서 헤어져서 사환이 지적해 준, 나란히 붙은 방 세 개에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갔다.

“화투라도 사다가 놀시다.” 헤어지기 전에 내가 말했지만

“난 아주 피곤합니다. 하시고 싶으면 두 분이나 하세요.”하고 안은 말하고 나서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나는 아저씨에게 말하고 나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숙박계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나서 사환이 가져다 놓은 자리끼를 마시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썼다.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잤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안이 나를 깨웠다.

“그 양반, 역시 죽어 버렸습니다.” 안이 내 귀에 입을 대고 그렇게 속삭였다.

“예?” 나는 잠이 깨끗이 깨어 버렸다.

“방금 그 방에 들어가 보았는데 역시 죽어 버렸습니다.”

“역시 ……” 나는 말했다.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아직까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선 빨리 도망해 버리는 게 시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살이지요?”

“물론 그것이겠죠.”

나는 급하게 옷을 주워 입었다. 개미 한 마리가 방바닥을 내 발이 있는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그 개미가 내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얼른 자리를 옮겨 디디었다.

밖의 이른 아침에는 싸락눈이 내리고 있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빠른 걸음으로 여관에서 멀어져 갔다.

“난 그 사람이 죽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안이 말했다.

“난 짐작도 못했습니다.”라고 나는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코트의 깃을 세우며 말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할 수 없지요. 난 짐작도 못 했는데…….” 내가 말했다.
“짐작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내게 물었다.
“씨팔것, 어떻게 합니까? 그 양반 우리더러 어떡하라는 건지…….”
“그러게 말입니다. 혼자 놓아두면 죽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해 본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난 그 양반이 죽으리라고는 짐작도 못했다니가요. 씨팔것, 약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모양이군요.”

-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나)

어쨌거나 사람들은 이제 외로움을 느낄 필요가 없어졌다. 매시간 언제든지, 하루 24시간 동안이든 한 주 동안이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마술처럼 친구들을 불러낼 수 있다. 저 온라인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언제나 명령만 내리면 그 즉시 누구라도 불러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중략)

다음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접속’은 장차 서로를 난처하게 할지도 모르는 유쾌하지 않은 말다툼을 반드시 거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접속’은 말다툼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려는 첫 신호가 감지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중지될 수 있다는 말이다. 어떤 해명을 하거나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늘어놓아야 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그 어떤 고통과 위험도 없이 단지 손가락으로 가볍고 섬세하게 버튼을 누르는 일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혼자라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지나친 요구에 노출되어서 위협당할 필요도 없다. 희생하라거나 타협하라는 요구에 위협당할 필요도 없고, 당신이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만 한다는 식의 요구에 응할 필요도 없다. (중략)

또한 당신은 사람로부터 받는 메시지들을 잠깐 대충 훑어보는 척하면서 귀찮은 군중들 밖으로 벗어날 수도 있다. 심지어 당신이 것처럼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손에 쥐고 있다면, 우르르 몰려다니는 무리들 속에서도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온라인에 접속해 당신 자신을 혼자 있게 만들 수도 있다. 그것도 아주 즉시, 곧 어떤 친구가 당신에게 지나치게 바짝 붙으려 하는 순간이나 아니면 지나치게 당신 취향을 참견하려는 순간 그 즉시 말이다. (중략)

별다른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은 바로 그 모든 일에는 분명 대가가 뒤따른다는 사실이다. 다음과 같은 짐머만 교수의 말을 한번 더 인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즐겁게 독서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창밖을 응시하면서 당신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세계를 상상해보는 일을 점점 덜하게 되었을 것이다. 당신은 당신과 아주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일도 점점 덜하게 되었을 것이다. 오히려 멀리 있는 친구들이 접속하려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과연 누가 정작 가족과 이야기하기를 원하겠는가?”

- 지그문트 바우만,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 재구성



(다)

평상이 있는 국숫집에 갔다
 봄비는 국숫집은 삼거리 슈퍼 같다
 평상에 마주 앉은 사람들
 세월 넘어온 친정 오빠를 서로 만난 것 같다
 국수가 찬물에 행귀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
 찻잔 찻잔 찻잔 찻잔,
 손이 손을 잡는 말
 눈이 눈을 쓸어주는 말
 병실에서 온 사람도 있다
 식당 일을 손 놓고 온 사람도 있다
 사람들은 평상에만 마주 앉아도
 마주 앉은 사람보다 먼저 더 서럽다
 세상에 이런 짧은 말이 있어서
 세상에 이런 깊은 말이 있어서
 국수가 찬물에 행귀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
 찻잔 찻잔 찻잔 찻잔,
 큰 푸조나무 아래 우리는
 모처럼 평상에 마주 앉아서

- 문태준, 「평상이 있는 국숫집」

[문제1-1] 제시문 (가)와 (나)는 현대 사회에서의 개인 간 관계 맺음의 특징을 보여주는 글이다. 두 글에 나타나는 관계 맺음의 특징을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1-2] 제시문 (나)의 관계 맺음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다)의 관계 맺음의 양상과 연결시켜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리카도의 차액지대 이론은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수치적 예시를 이용해 설명한다. 여러 등급의 토지가 있어서 여러 토지에 같은 양의 자본을 투입하더라도 각각 다른 양의 곡물이 생산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1,000 파운드의 자본을 1등급 토지에 투입하면 100 퀘터의 밀이 생산된다. 2, 3, 4 등급 토지에 투입하면 90, 80, 70 퀘터의 밀이 각각 생산된다. 동일 토지에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할 수도 있다. 1,000 파운드를 더해 2,000 파운드의 자본을 1등급 토지에 투입하면 85 퀘터 늘어난 185 퀘터의 밀이 생산된다. 다시 1,000 파운드를 더해 3,000 파운드의 자본을 투입하면 75 퀘터 늘어난 260 퀘터의 밀이 생산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자본투입 \ 토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000	100	90	80	70
2,000	+ 85	+ 75	+ 65	+ 55
3,000	+ 75	+ 65	+ 55	+ 45

1등급 토지에서 수확가능한 곡물의 양이 곡물 수요보다 많다면 낮은 등급의 토지를 경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한 1등급 토지가 충분히 많아서 그 일부만 경작되고 있다면, 곡물 수요가 늘더라도 기존 경작지에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경작하지 않던 1등급 토지에 자본을 투입해서 곡물을 생산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단위 면적당 1,000 파운드의 자본을 투입해서 100 퀘터의 밀을 생산하는 일이 여전히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액지대가 없다. 지주가 차액지대를 요구하면 농부는 다른 1등급 토지를 경작하면 되기 때문이다.

1등급 토지만으로는 곡물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비로소 차액지대가 지불된다. 2등급의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1등급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단위 면적당 10 퀘터의 차액지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1등급 토지와 2등급 토지 전부를 경작해도 곡물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는 더 많은 차액지대가 지불된다. 우선 1등급 토지 일부에 단위면적당 1,000 파운드의 자본을 더 투입해서 85 퀘터의 곡물을 더 생산할 텐데, 이렇게 될 경우 기존의 1등급 토지에는 단위면적당 $100-85=15$ 퀘터, 2등급 토지에는 $90-85=5$ 퀘터의 차액지대가 지불된다. 그래도 곡물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3등급 토지까지 경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단위면적당 1,000 파운드의 자본을 투입해서 80 퀘터의 곡물을 생산하게 되고 1등급 및 2등급 토지의 차액지대는 더 증가하게 된다.

-홍훈 외, 『경제학의 교양을 읽는다(고전편)』 재구성

(나)

아이돌이든 요리사든 직장인이든 선생님이든 자신의 노동을 공급해 무언가를 생산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얻는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이들이 현재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소득을 버는 것은 다른 일을 할 때 벌 수 있는 소득, 즉 기회비용보다 지금의 소득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기회비용 쪽이 더 크다면 현재의 일자리를 포기하고 새로운 일자리로 옮길 것이다.

노동을 공급하면서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벌 수 있는 소득(기회비용)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어들인데, 이 차이를 '경제적 지대'라고 한다.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은 저마다 경제적 지대를 얻지만 자신의 소득 가운데 경제적 지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람마다 다르다. 자신이 공급하는 노동이 아무나 공급할 수 있는 평범한 노동일수록 현재 소득은 기회비용에 가까워진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회비용 이상으로 많은 소득을 벌기 힘들다는 뜻이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공급하기 어려운 노동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므로 기회비용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벌 수 있다. 결국 희소성이 핵심인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지니지 못한 능력이나 기술을 보유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경제적 지대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한진수, 『청소년을 위한 경제학 에세이』 재구성

(다)

기업가들이 경제적 지대를 추구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일단 지대를 얻을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면 당분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업가들이 생산성 성장 그 자체에 헌신하고 싶어 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물론 예외적 사례도 있다.) 그러므로 독점적 지위(와 이에 수반하는 지대)가 너무 빨리 무너지는 사회의 경우 기업가들이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를 상실하게 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독점적 지위가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도 문제는 크다. 지대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으면 혁신 인센티브가 사라지고, 너무 길면 생산성 성장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기업가들의 지대 향유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가? 이 기간은 기업가들이 지대를 위한 혁신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길어야 하는 동시에, 이들의 관심을 생산성 개선으로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짧아야 한다."

그렇다면 지대 향유 기간을 지속적이되 항구적이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특허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다. 특허 시스템은 혁신 기업에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 준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사를 모방하는 다른 기업에게 추월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혁신을 추구함으로써 사회 전체에도 기여할 수 있다. 동시에 특허 시스템은 특허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독점적 지위의 유지에 따른 장기적 생산성 하락이 해당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 놓은 생산성 이득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다.

-장하준, 『국가의 역할』 재구성



(라)

차등의 원칙이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예를 들면,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소수자의 노고가 전체의 더 큰 선으로 보상된다는 이유로 어떤 제도를 정당화하는 일을 배제한다. 다른 사람의 번영을 위해서 일부가 손해를 입는 것이 편리할지는 모르나 정의롭지는 않다. 그러나 불운한 사람의 처지가 그 때문에 더 향상된다면 소수자가 더 큰 이익을 취한다고 해도 부정의한 것은 아니다.

차등의 원칙은 결국 개인이 지닌 천부적 재능을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재능에 따른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데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천부적으로 더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여건을 개선해 준다는 조건에서만 그들의 행운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롤스, 『정의론』

[문제2-1] 제시문 (가)는 리카도의 ‘차액지대’ 이론을 설명하였고 제시문 (나)는 노동의 ‘경제적 지대’를 설명하였다. 제시문 (가)에 예시로 설명된 차액지대 발생의 원리를 개념적으로 요약하여 서술하고, 이러한 원리가 제시문 (나)의 경제적 지대 개념과 어떠한 공통점을 갖는지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5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2-2] 제시문 (다)는 독점적 기업이 누리는 ‘경제적 지대’를 특허 제도를 통해 일부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고, 제시문 (라)는 롤스의 ‘차등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제시문 (다)의 주장과 제시문 (라)의 원칙이 갖는 공통점을 설명하고, 제시문 (라)의 관점에서 제시문 (다)의 주장을 비판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300(±100)자로 할 것. (25점)